

GCS CULTURE CENTER 푸른방송 문화센터

AUTUMN, 2020

10 · 11월 추가 회원모집

/ 강좌기간 10월 5일(월) ~ 11월 30일(월)
/ 접수문의 565-0877~8

미술

월요수채화 / 화요 서양화 / 수요 수채화
수요 저녁서양화 / 콩테 인물화
한국화 / 보타니컬아트

건강 · 운동

플렉스 요가(오전 · 저녁) / 저녁 필라테스
한국무용&우리춤 / 라인댄스 / 댄스스포츠

전문지도자과정

시창작교실 / 커피바리스타 2급

음악

지숙미의 가곡교실 / 드럼 / 오카리나 / 하모니카

취미 · 교양

힐링 시낭송 / DIY생활가구 / 차와 힐링



푸른신문

2020년 10월 15일 목요일 제1,140호

세무사 정수득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정 수 득 H.P 010-8773-3910
양도소득세 등 조세컨설팅, 신속증개
매물항상접수, 공동증개 환영
등록번호: 27290-2020-00170
T.053-568-4600 F.053-568-4601

기간: 2000년 10월 31일 / 주간 T.053)572-6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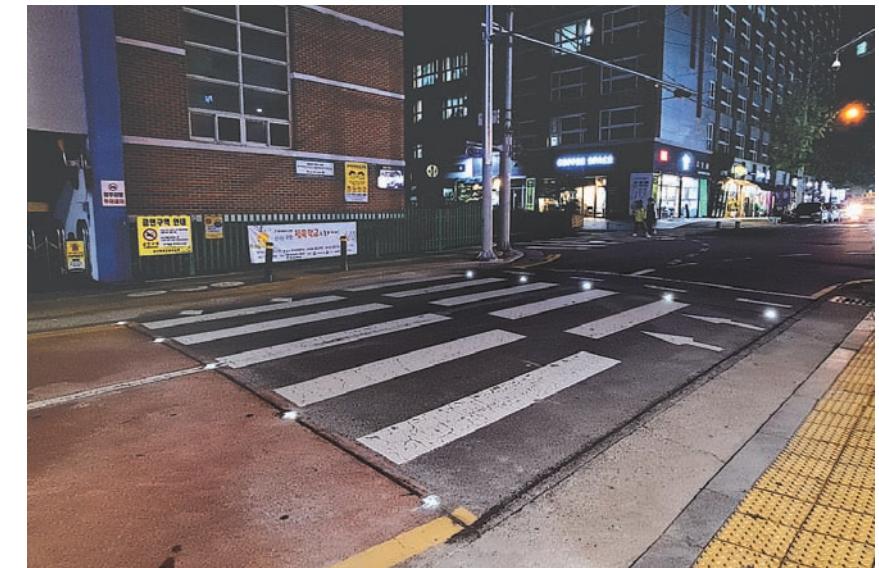
달서 · 달성 지역신문
www.prssinmun.co.kr



지면안내»	
지역	03~09면
고령	12면
성주	13면
지역사랑파트너	15면
종합	16~19면
기고	20~21면
교육	23~24면
문화	25~27면
건강	28~29면
운세·날씨	30면
퍼즐	31면

대구 최초 '활주로형 횡단보도' 구축

달성군, 보행자 안전중심 교통시설 날개 단다



달성군(군수 김문오)에서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기 위해 대구 최초로 선진국형 교통안전시설인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구축했다.

일명 '민식이법' 시행(2020. 3. 25 시행,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군민들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사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달성군은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예방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보행자가 많으며 야간식별이 곤란하여 사고위험이 높은 신호등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 이면도로 2곳에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시범 설치했다.

활주로형 횡단보도'는 횡단보도 양옆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매립한 LED 유도등을 점멸해 건널목임을 인지시키는 교통안전시설이다. 야간뿐 아니라 미세먼지, 안개, 우천 등 기상변화로 인해 가시거리가 짧아졌을 경우에도 시인성 확보에 유용하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안전사고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달성군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위하여 노란신호등 설치, 엘로카펫(yellow carpet,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 설치, 노란 발자국 사업 등 어린이와 부모가 안심하는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김문오 군수는 "주민들, 특히 어린이 및 교통악자들의 교통안전을 쟁기기 위해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도입했으며, 앞으로도 생활 속 불편함을 세심히 살펴 어린이와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달성군은 주민들과 운전자들의 의견과 반응을 종합해 2021년부터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달성군청〉

새 시대의 미래전략 '스마트도시 달서'

달서구, 스마트도시 전문가 인력풀 구축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대구의 새 중심, 달서 새 시대의 미래전략으로 '스마트도시 달서' 조성을 위한 한 분야별 스마트도시 전문가 인력풀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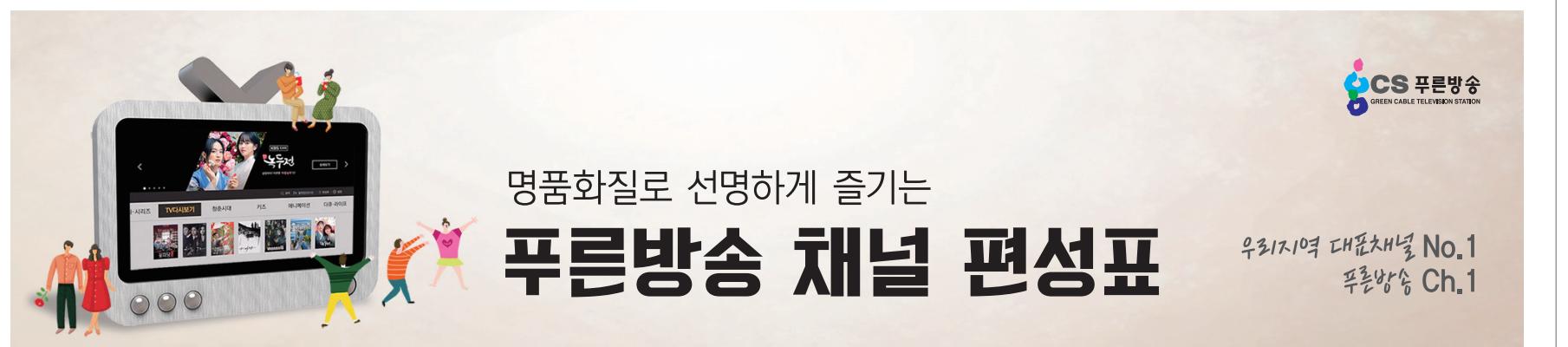
이번 전문가 인력풀은 지역 내 도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디지털 기술 제안뿐 아니라, 점차 확대되고 있는 정부부처 스마트도시 공모사업 대응 전략을 위한 자문역할도하게 된다. 특히, '스마트도시 조성'의 본격적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8월에 구성된 자체 전담조직인 '달서 스마트도시 T/F단' 회의에도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자문을 제공하게 된다.

모집분야는 도시계획(스마트 도시계획 · 재생), 디지털 기술(ICT, IoT, 빅데이터 등), 스마트도시 서버 및 미래 스마트도시로 나아가기 위

한 발판으로 지난 9월 전담팀인 스마트전략팀을 신설했고 디지털 기술과 관련한 지역대학, 공공기관 · 기업 등 상호협력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오는 12월에는 '달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도 제정해 행정 · 제도적 기반 조성을 탄단하게 마련할 예정이다.

이태훈 구청장은 "새 시대의 신성장 동력과 미래 발전전략으로 '스마트도시 달서' 조성을 목표로 하여 분야별 전문가들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달서구만의 특화된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단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달서구청〉



HD국민형방송 채널표

번호	채널명	장르
1-1	푸른방송	지역채널
2-1	EBS플러스1	교육
3-1	EBS플러스2	교육
5-1	tvN	오락
6-1	EBS	지상파
6-2	EBS2	지상파
7-1	KBS2	지상파
8-1	CJ오쇼핑	홈쇼핑
9-1	KBS1	지상파
10-1	롯데홈쇼핑	홈쇼핑
11-1	MBC	지상파
12-1	GS SHOP	홈쇼핑
13-1	TBC/SBS	지상파
14-1	NS홈쇼핑	홈쇼핑
15-1	현대홈쇼핑	홈쇼핑
16-1	홈앤쇼핑	홈쇼핑
17-1	JTBC	종편
18-1	채널A	종편
19-1	TV조선	종편
20-1	MBN	종편
21-1	공영쇼핑	홈쇼핑
22-1	SBS CNBC	경제
23-1	연합뉴스TV	보도

번호	채널명	장르
24-1	YTN	보도
25-1	한국경제TV	경제
26-1	MBC 예브리원	오락
27-1	Mnet	음악
27-2	채널DIA	오락
28-1	코미디TV	오락
29-1	XtvN	오락
30-1	스クリ	영화
30-2	인디필름	영화
31-1	OCN	영화
32-1	OCN무비즈	영화
32-2	Mplex	영화
33-1	CNTV	드라마
34-1	K Star	오락
35-1	하이마이트TV	오락
36-1	JTBC2	여성
36-2	JTBC4	여성
37-1	CMCTV	오락
37-2	채널이엠	오락
38-1	KBS JOY	오락
39-1	다원	오락
39-2	Fun TV	오락

우치지역 대표채널 No.1
푸른방송 Ch.1

GCS 푸른방송

GREEN CABLE TELEVISION STATION

GCS 푸른방송

우리 마을 '돌봄서비스' 신청하세요

맞벌이를 하고 있는 직장인 서정탁(44) 씨는 초등생들을 둔 가장이다. 직장이 코로나 19사태에도 불구하고 큰 영향 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 사기 업이지만 문제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다른 가정처럼 이 학원, 저 학원으로 보내기에는 사교육비가 감당이 안 되는 상황. 이런 서 씨 상황에 도움이 되고자 달성군에서는 돌봄 취약 계층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인천의 한 형제가 부모가 없는 집에서 난 화재로 안타까운 상황을 맞은 사건이 있었다. 이러한 돌봄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체계가 밟았고 나섰다. 바로 '방과후 돌봄서비스'이다. 이 돌봄 서비스는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위해 보건복지부(지역아동센터), 교육부(초등돌봄교실), 여성가족부(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가 추진하고 있는 아동복지 프로그램으로 아동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아동센터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18세 미만 아동을 우선으로 하지만 일반아동도 지원해 볼 수는 있다.

보호 프로그램,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 02-6283-0291)에서 이용 안내를 받거나 중앙지원단 홈페이지에서 (<http://www.icare.info.go.kr>) 홈페이지를 활용해 우리 동네의 지역아동센터를 찾을 수 있다.

교육부에서는 초등돌봄교실을 운영 중인데 맞벌이나



화의 집(가창면 가창로 220길 8)이 있다.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우리 아이들을 위한 돌봄은 병정부 방과후 돌봄서비스 연계사업으로 앞으로 점점 더 확대될 전망이다.

이원욱 객원기자

동남아 채소 구하고 싶다면

'화원장'으로 오세요~

태국이나 베트남을 여행한 경험이 있다면 공심채나 고수와 같은 현지 채소를 먹은 기억이 있을 것이다. 코로나로 인해 해외여행은 갈 수 없지만 싱싱한 동남아 식재료를 저렴하게 구하고 싶다면 장날(1, 6)을 맞춰 화원장으로 가보자.

화원장날 할머니들이 손수 텁발에서 재배한 싱싱한 야채들로 인도 위에 빙틈없이 노점이 펼쳐지는데 그 틈에 좀 낮은 채소를 파는 노점이 있다. 바로 베트남에서 온 결혼이주민 여성 배시안(32) 씨의 화원장에서 단 한 곳밖에 없는 동남아 식재료를 파는 곳.

14년 전 베트남에서 고령군 다산면으로 시집은 배시안 씨는 이젠 한국말이 아주 능숙한 한국인이 되었다. 땀 흘리면서 평소에는 참외농사와 각종 농사를 짓지만 화원장날이 되면 어김없이 나와서 장사를 하는 것이다.

다산면에서 참외농사를 하는 남편과 결혼한 배시안 씨는 어느 날 고향음식이 너무 그리워 비닐하우스 안에 직접 고향에서 먹던 채소를 재배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한국과 베트남이 기후가 다르지만 비닐하우스 안에서는 웬만한 동남아 채소들이 잘 자란다고 한다. 재배한 채소를 가족들과 먹고 이웃에 나눠주고도 남았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4년 전부터는 화원장에 내다 팔기 시작했다. 달성군에는 동남아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주민 여성이 많은데 충분히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 본격적인 동남아 채소들을 재배하기 시작했다.

배시안 씨의 예상은 적중했다. 처음에 힘든 점도 있었지만 지금은 고정 구매 고객을 확보하고 있어 준비해온 물량은 언제나 매진된다고 한다. 아는 동생이 일손을 거들어주고 있을 정도로 장사가 잘된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동남아 식재료를 구입하려면 매우 비싸고 종류도 다양하지 않은데 화원장 노점에서 만나는 각종 동남아 향신료와 채소들은 매우 싱싱하고 가격도 저렴했다. 공심채를 비롯해서 레몬그라스, 베트남 가지, 어크락, 고수 등 십여 가지 싱싱한 야채들이 박스 안에 가지런히 담겨 있다. 장이 서는 날이면 새벽에 비닐하우스에서 수확해서 곧바로 가져온다고 했다.

싹싹하고 부지런한 배시안 씨는 화원장날이 무척 기다려진다고 한다. 수입도 쏠쏠하지만 고향 친구들과 물건을 사고팔면서 안부를 묻는 소통의 장이 되기 때문이다. 취재하면서 구입한 공심채를 집에 가져와 볶았더니 어찌나 맛있던지 여행지에서의 행복했던 기억이 떠올라 흐뭇한 미소와 함께 배시안 씨네 단골이 될 것 같은 예감과 듣는다.

서순우 객원기자



'희망일자리사업'으로 사랑을 전해요

달서구, 다문화가정에 면마스크 전달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지난 8일 구청장실에서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이 손바느질과 재봉틀을 활용하여 만든 면마스크 1,000장을 다문화가정에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면마스크는 달서구 대표 희망일자리사업인 '폐품에 가치를 더하는 업사이클 지원사업' 참여자들이 9월 한 달동안 정성스럽게 만든 제품이다.

달서구는 '달서구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를 통해 면마스크를 관내 다문화가정에 전달할 계획이며, 코로나19로 인해 계속해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이웃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사업 참여자들은 마스크뿐만 아니라 폐현수마을 활용한 애코백, 폐첨자리를 재활용한 슬리퍼 등 다양한 제품을 만들고 있으며, 구에서는 사업 종료 시까지 생산된 제품을 지속적으로 취약계층에 기부할 예정이다.

이태훈 구청장은 "정성 가득 담긴 마스크를 우리 이웃들이 소중하게 사용하기 바라며, 사업 종료 시까지 참여자들이 다양한 기술을 익혀 향후 재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달서구청〉



가을愛 만나 결혼하세요~

달서구, 10월 설레는 만남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축복의 계절 10월을 맞아 바쁜 일상 등으로 이성을 만날 기회가 부족한 미혼남녀의 간전한 데이트와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특별한 만남을 마련한다.

먼저, 16일 달서구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에서는

마지막으로 '썸외롭지 않은 날'은 31일 자매도시인 성주군 핫플레이스에서 개최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결혼을 장려하고 있는 양 기관의 협력사업으로 아라월드 돌레길, 추억의 박물관 미션게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가을愛 만남 행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미혼남녀는 달서구 여성가족과(☎ 667-3791) 또는 달서구 건강가정·다문화 지원센터(☎ 593-1511)로 신청하면 된다.

달서구는 저출산 인구절벽에 대응하고 건강한 가족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16년 7월 결혼장려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마지막으로 '썸외롭지 않은 날'은 31일 자매도시인 성주군 핫플레이스에서 개최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결혼을

장려하고 있는 양 기관의 협력사업으로 아라월드 돌레길,

추억의 박물관 미션게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가을愛 만남 행사에 참여를

변점식 기자



달성군 분홍빛으로 물들다

달성군(군수 김문오)이 낙동강 둔치(논공삼거리 인근)에 조성한 핑크뮬리 정원이

분홍빛으로 수를 놓으며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달성군이 13,000m² 규모로 심은 핑크뮬리, 백일홍, 코스모스가 만개해 방문객들과 군

민들에게 낭만적인 가을 풍경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핑크뮬리와 팜파스그라스가 청명한 하늘과 어우러져 가을 정취를 들판 위에 퍼트렸다.

면서,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이 모처럼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분홍빛 추억을 담고 있다.

〈자료제공: 달성군청〉



'도동서원로 1 도동서원'

UNESCO 세계문화유산 도로명주소

달성군(군수 김문오)이 구지면 구지서로 일부 구간을 역사성과 상징성을 가진 '도동서원로'로 변경해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이곳은 UNESCO 세계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서원) 도동서원이 자리하고 있

달서구 취업노크 대구서부고용센터

관리·사무직

사업체명	모집직종	학력	임금
(주)세아상유 053-584-2677	생산·품질 사무원 및 관리원 (화학·설유·의료)	무관	월 280만 원 이상
(주)자원산업 053-584-6060	생산·품질 사무원 및 관리원 (화학·설유·의료)	고졸 이상	월 220~240만 원 (상여 20%)
(주)수성 053-592-0507	생산·품질 사무원 및 관리원 (건설)	무관	연 2,420만 원 이상
험민테크 053-584-9330	자체·구매 사무원 (일반 사업체)	무관	연 2,400만 원 이상
(주)유월 053-614-3915	자체·구매 사무원 (기계·자동차·금속)	전·대학 이상	월 230만 원 이상 (상여 20%)

기술·기능직

사업체명	모집직종	학력	임금
(주)용두공업 053-585-5920	머사닝센터(MCT) 조작원	무관	연 5,000만 원 이상
(주)자엔테크 053-584-5578	머사닝 센터(MCT) 조작원	고졸 이상	시급 8590원 이상
한민테크 053-292-8829	머사닝 센터(MCT) 조작원	무관	시급 8590원 이상
대한리아저 053-588-6152	카드캠 기능원	무관	월 250만 원 이상 (상여 15%)
(주)동신농축 053-592-8201	금형원	무관	시급 8590원
서문디에스알 053-667-4211	레이저 절단원	무관	월 330만 원 (상여 50%)

단순 생산직

사업체명	모집직종	학력	임금
제이엔트레이딩 053-584-6618	설유·의복 분야 단순 종사원	무관	월 1,795,310원 이상
대한미디어(주) 053-585-9194	설유·의복 분야 단순 종사원	무관	월 280만 원 이상
대한미디어(주) 053-585-9194	설유·의복 분야 단순 종사원	무관	월 220만 원 이상
(주)한성비탈 053-583-4020	제조 단순 종사원	무관	월 2,182,000원 이상 (상여 15%)
(주)에이비엔 053-591-8220	제조 단순 종사원	고졸 0상	시급 8590원
남경산법 053-592-1070	제조 단순 종사원	무관	시급 8590원 이상
우림 053-582-2520	기타 모제·종이 기계 조작원	무관	시급 8600원

영업(판매), 운전배송직

사업체명	모집직종	학력	임금
씨제이택 053-588-4242	영업 관리자 (영업소장·지점장)	무관	월 250~300만 원
(주)정진난리미루 053-586-1827	배송·납품 운전원 (남녀영업 포함)	무관	월 230~250만 원
주식회사 삼화밀드 053-582-1874	배송·납품 운전원 (남녀영업 포함)	고졸 이상	월 230~240만 원
(주)정기리포트 053-585-2457	배송·납품 운전원 (남녀영업 포함)	고졸 이상	연 2,800~3,200만 원

*문의: 대구서부고용센터 053

jtbc2



jtbc2 채널번호

푸른방송 8VSB 36-1, 디지털 44번 | IPTV KT olleh 39번, SK Btv 48번, LG U+ 40번 | SkyLife 45번

달성군 '제25회 달성군민의 날'

달성군민상(이호연, 이곤수) 및 자랑스러운 달성인상(나준호, 한병찬) 시상

달성군(군수 김문오)은 지난 8일 군청 군민소통관에서 제25회 달성군민의 날 기념식을 겸해 '달성군민상 및 자랑스러운 달성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그동안 달성군민상 시상은 군민의 날인 매년 10월 9일 열리는 군민체육대회에서 수여해 왔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신설된 자랑스러운 달성인상과 함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간소하게 치러졌다.

달성군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군민상 2명(이호연, 이곤수), 달성 출신 출향인사로 달성군의 명예와 위상을 드높인 자랑스런 달성인상 2명(나준호, 한병찬)을 선정·수상했다.

이호연 회장(달성군 여성단체협의회)은 여성 권익신장과 양성평등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이곤수 회장(현풍읍 번영회)은 소외계층에 대한 선행으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달성군민상을 수상했다.

화원 출신인 나준호 회장은 어린이 책 전문 출판사 예림당을 설립, 우리나라 출판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구지 출신인 한병찬 교수(연세대학교)는 국제 학술지에 다량의 논문을 게재하며 대한민국 나노산업과 첨단산업 국산화에 앞



장서 은 공로를 인정받아 선정됐다. 자랑스러운 달성인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특별한 업적으로 달성을 빛낸 출향인들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시행된 상이다.

김문오 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오랜 세월 지역발전과 이웃사랑을 실천해 달성의 명예와 위

상을 드높여온 수상자들에게 군민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를 드린다"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인내와 희생을 감내해 주고 계신 군민들께도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자료제공:달성군청〉

한 건축물 소유자에 대해 지난 7월 부과한 건축물 재산세도 잊지 않았다.

이태훈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에서 매월 내야하는 임대료는 자영업자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였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위기를 극복하고자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지역의 임대인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소상공인, 기업인들에게 이번 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향후에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달서구청〉

임대인·임차인이 코로나19 극복의 선봉장

달서구, 소상공인 임대료 25억 원 인하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지난 4월 '경제살리기 대학생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을 위해 임대료 인하 분위기를 확산한 결과 25억 원의 임대료를 인하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달서구는 지난 3월 25일 임대·임차인이 함께 하는 상생 협약식을 시작으로 '달서형 희망나눔 운동'을 전개하여 착한 임대료 인하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을 감면했고, 이로 인한 임대료 인하금액은 25억 원에 달한다.

특히, 달서구는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고 대구가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던 지난 3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구제·감면동의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5월에 구의회의 의결을 거쳤다.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금도 잊지 않았다.

이태훈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에서 매월 내야하는 임대료는 자영업자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였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위기를 극복하고자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지역의 임대인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소상공인, 기업인들에게 이번 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향후에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달서구청〉

달성군청소년문화의집 '아빠와 만드는 놀이터'

달성군청소년문화의집(관장 박성수)은 코로나19로 인해 청소년활동이 위축된 가운데 집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가족 구성원과 청소년이 소통집에서 함께 즐길 수 있는 '아빠와 만드는 놀이터'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구성원과 청소년이 소통집에서 함께 즐길 수 있는 '아빠와 만드는 놀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7일까지 진행된 1차 '아빠와 만드는 놀이터' 프로그램에서는 한가위, 개천절 등 장기 연휴를 맞아 코로나19로 지역 이동이 어려운 청소년 및 가

족을 대상으로 집에서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활동

'아빠와 만드는 놀이터' 프로그램은 10월 14일부터 10월 25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등으로 대체되고 있는 가을 운동회와 가을 소풍의 아쉬움을 달래고자 가족이 함께 집에서 만들 수 있는 가을 피크닉 도시락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

정이다.

김문오 군수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아빠와 만드는 놀이터' 등의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달성군청소년문화의집〉



지역

‘다름’은 ‘차별’이 아닌 ‘이해’

대구시의 다문화 가정 증가세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추세이다.

교육부가 최근에 발표한 ‘2019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초중고교 다문화 배경 아동·청소년 수는 전년도 12만 2,212명보다 12.3% 늘어난 13만 7,225명으로 집계됐으며 앞으로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다문화 가정 아동·청소년들은 ‘다름’에 대한 사회적인 차별과 편견, 배척 등으로 발생하는 심리적 위축과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로인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 등으로 힘들어 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

으로 다문화 배경 아동·청소년 중 상당수가 학교 부적응 등으로 학교 중도 탈락률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달서구 신당동 지역은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비율이 가장 높게 차지할 만큼 다문화 배경 아동·청소년 지역이다. 이곳에는 대구광역시 교육청으로부터 지정받은 4개교 다문화 정책학교(신당, 죽전), 다문화 중점학교(와룡), 다문화 집중교육 학교(신당, 죽전, 신서, 와룡)가 있다.

이에 달서구 성서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지금까지 해오던 다문화가정 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삼성 꿈정학재단’에서 지원하는 ‘2020년 배움터 다문화 전문형 교육지원사

업’에 선정되어 이곳 다문화 가정 아동들을 대상으로 ‘꿈틀꿈틀 레고 레고’ 교육 사업을 운영 중에 있다.

‘꿈틀꿈틀 레고 레고’ 교육 프로그램은 요즘 대세이자 아이들이 가장 배우고 싶어하는 유튜브와 장난감 레고를 활용하여 직접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 보급 할 수 있는 미디어 크리에이터 교육이다.

교육에 참여인 아동들은 레고 블럭을 이용해 자신만의 레고 캐릭터를 만들어 애니메이션 기법을 활용한 움직이는 캐릭터를 이용해 다

양한 나라의 문화와 전통 이야기를 소개해 주는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제작된 콘텐츠는 학교와 지역주민들에게 직접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위축되어 있는 심리적 안정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사회성 함양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윤슬기 선임사회복지사는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다문화 배경 아동들이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능력을 키워 글로벌 시민의식을 가진 청소년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다문화 가정 교육 프로그램들이 전국적으로 활성화되고 널리 보급되어 나와 다른 차별과 편견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 이해와 인정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김재훈 객원기자

이혼위기, 지혜롭게 극복 달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무료상담

예로부터 결혼은 인륜지대로 보는 위기 사라했다.

그만큼 삶에 있어서도 결혼은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하지만 그에 반해 이혼 또한 삶에 있어 중요한 문제이자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이혼이란, 결혼 당사자들 간의 협의 또는 재판상 절차를 거쳐 법률상으로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으로 이혼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이 있다.

하나는 가족해체현상으로

인한 사회적문제로 보는 위기론적 관점이며, 또 하나는 이혼으로 인한 개인의 새로운 출발과 재도약의 기회를 맞이한다는 가족 재구성 측면을 강조하는 진보적 관점이다.

이 두 가지 관점은 이혼 위기에 처해있는 가족들이 선부른 이혼을 하기 전에 앞서 실제적인 심리적 안정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서로 간의 법률적, 심리적인 접점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2019년 여성가족부 통계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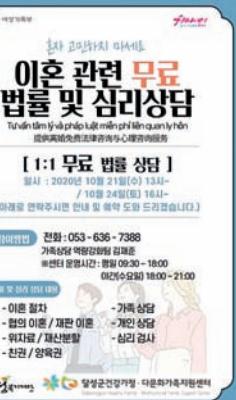
료에 따르면 조이혼율은 2019년 기준 전연도 대비 2.2% 증가로 지속적인 가족의 해체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부간의 갈등으로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중인 가족의 비중이 심각하게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이혼 위기에 처해있는 가족들은 이혼 전·후 과정에 있어 먼저 심리적인 상담과 함께 이혼절차, 법률 정보, 경제적 문제, 자녀양육 문제 등의 전반적인 이해와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상황

이다. 이에 달성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혼 위기에서 처해 있는 내·외국인 가족을 대상으로 이혼 관련 무료 법률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상담은 일대 일 대면 상담으로 진행하며, 1차로 10월 21일 오후 1시부터, 2차는 10월 24일 오후 4시부터 진행한다.

상담은 선착순 예약으로 받고 있으며, 자세한 안내와 상담 예약은 053-636-7388(가족상담사 김재준)로 하면 된다.



달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이혼 관련 무료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이혼 위기에 처해 있는 많은 가족들이 난관을 극복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김재훈 객원기자

달성군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어울림마당’ 비대면프로그램 진행

달성군청소년문화의집(관장 박성수)은 청소년들이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상시적 공간 조성 및 문화적 역량 증진, 감수성 도모를 위한 청소년 어울림마당을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진행한다.

지난 8월부터 한국전쟁 70년 기념 ‘주라 주라 퀴즈 주라-역사퀴즈’를 시작으로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진행한 ‘독서 조성퀴즈’, 내 몸에 유익한 먹거리 만들기인 ‘콩나물 키우기’ 등의 프로그램에 달성군 지역 청소년 180여 명이 참여했다.

10월 8일부터 10월 16일까지는 내방 꾸미기를 주제로 ‘내방의 맑은 공기-공기청정기 만들기’, 10월 19일부터 10월 30일까지 ‘아크릴 무드 명서 작성’ 등 체험과 관련된 과제 수행도 함께 진행하는 비대면 프로그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 키트는 선착순 현장 배부를 원칙으로 하고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완성 후 카카오 채

널로 비대면 서류를 제출하면 시상품도 배부하고 있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지친 청소년과 그 가족들에게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달성군청소년문화의집



성공의 열쇠!! 푸른방송 TV광고입니다.

방송광고 하나로 지역신문, SNS광고까지
모든 광고를 한번에 누리는 통합 마케팅 솔루션!
이제, 푸른방송과 함께 실속있고 합리적으로 광고하세요.



우리지역 채널 No.1 푸른방송 Ch.1
053-551-2000

지역민을 위한 맞춤형 채널



Ch.1 프로그램 소개

Channel for you

행복한 달서구 달성군 ► 정겨운 우리동네



지역의 다양한 행사나 동아리, 동호회 등의 행사를 제작, 방영하는 프로그램



버스킹 & 시간여행

버스킹으로 떠나는 시간여행 음악과 함께 추억을 선사하는 프로그램

사랑의 메시지



사랑하는 사람, 보고싶은 사람, 고마운 분들에게 감동 메시지를 전달해 드립니다.

▶ 참여방법: 사연과 관련사진, 동영상 등을 푸른방송으로 보내주세요.
사연은 푸른방송제작팀 E-메일 gcsup@gcs.co.kr / YellowID@gcsch4
☎ 053-551-2002

지역채널 뉴스 ► ch1 푸른방송 NEWS



지역의 생생한 소식을 신속히 전해드립니다.

▶ 방송시간

매일 00:00 / 03:00 / 06:00 / 08:00 / 12:00 / 16:00 / 19:00

종합편성채널(종편)

▶ TV조선 토요일 밤 9:10



대한민국 최간! 산 캐릭터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진보한 시사는 박수받지만 진부한 시사는 외면 받는다. 서로 코드가 맞지 않는 강경들이 뭉쳤다. 고품격 저작물 사이의 이슬이슬한 시사쇼!

▶ JTBC 일요일 밤 7:40



모든 집에는 주인장도 모르는 물건들이 신다? 언젠 가을 거 같아서… 버리자니 아까워서… 팔자니 귀찮아서…? 당신의 집에 잠든 물건, '유령마켓' 이 대신 팔아드립니다. 스타가 직접 자신의 물건을 통해 주민과 직거래하며 이웃과의 훈훈한 나눔과 소통을 통해 깊은 물건의 가치를 되새겨보는 시간!

케이블 채널



▶ tvN 수, 목요일 밤 10시 30분

환상적인 멜로 판타지의 주인공, 남자 구미호

그동안 드라마에 나왔던 구미호는 대부분, 사랑스러운 여자 구미호들이었다. 하지만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남자 구미호다. 당장 기이리로 빼주고 싶게 만드는 신비한 얼굴로, 오직 한 여자만을 기다리는 지고지순한 순정 남. 구미호 '이연'은 여성들이 꿈꾸는 가장 동양적인 판타지가 될 것이다!

구전동화 속 주인공들이 돌아온다! '모던' 한 옷을 입고! 인간을 뛰어넘은 새로운 액션물

새로운 무술과 CG 시퀀스를 통해 그간 보지 못했던 특별한 비주얼의 액션을 보여줄 것이다.

푸른방송 최신 영화관(VOD)

▶ 푸른방송 VOD 극장동시 상영작



레미 짐 없는 아이

인생 멘토와 함께 꿈과 가족을 찾아 떠난 소년의 아주 특별한 여행!

거듭되는 시련들 속에서도 희망을 잊지 않고 꿈을 노래하던 레미는 어느 날 자신의 출생에 숨겨진 비밀을 풀어줄 단서를 알게 되는데…

고연, 레미는 자신의 진짜 가족을 찾을 수 있을까?



언더워터

해저 11km,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무언가 깨어 냈다!

어두운 심해에 무언가 그들을 바짝 떠리고 있다. 불가

사의 한 포식자와 쫓고 쫓기는 위험천만한 게임에 간혀버린 대원들. 살아남기 위해선 남은 용기를 전부 쥐어 써내야만 한다. 살고 싶다면 모든 감각을 깨워라!

시청방법 ►
메뉴 → VOD다시보기 → 영화 → 극장동시상영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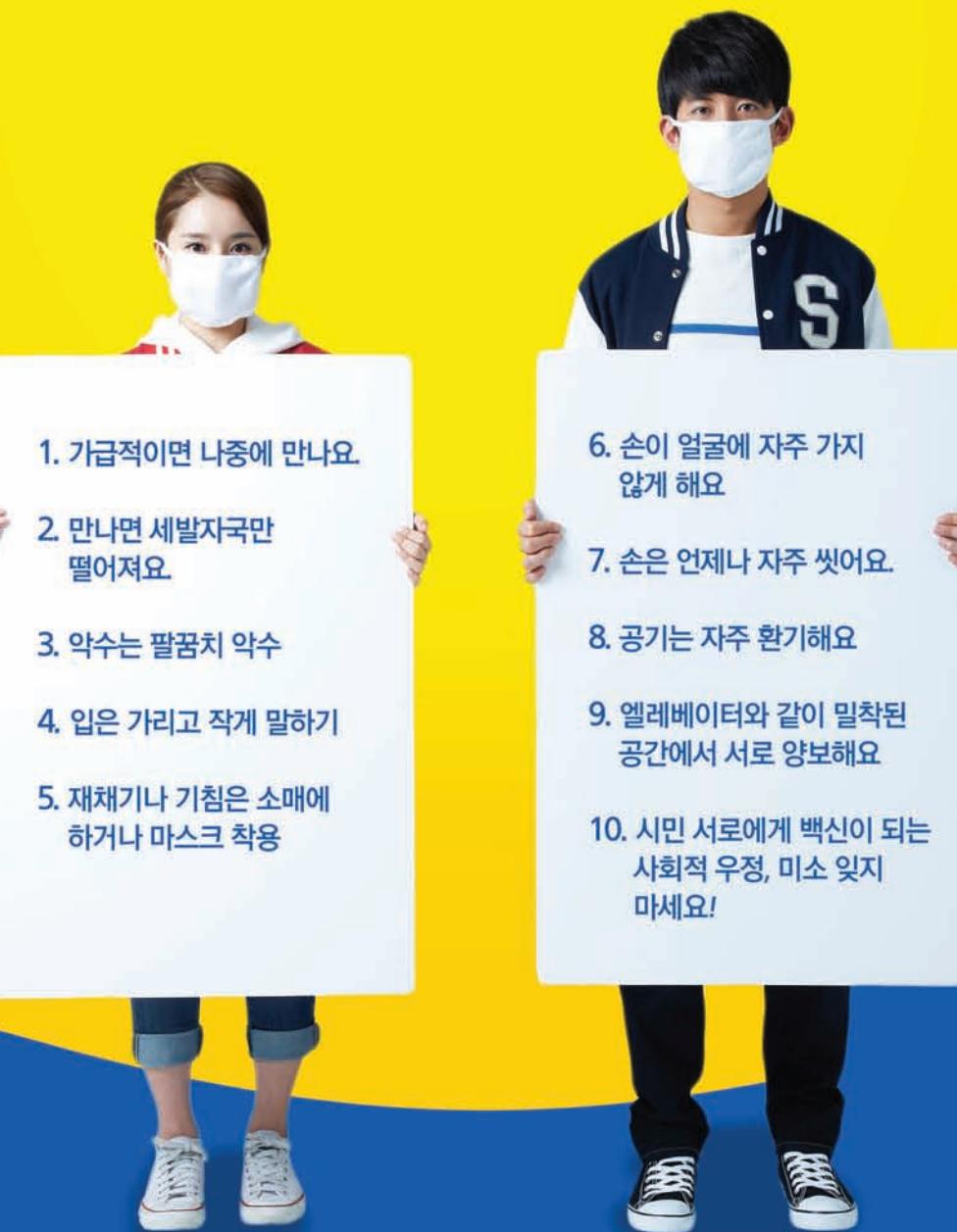
문의전화 053.551-2000

※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푸른신문 창간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뉴에티켓



함께 잘 견디고 이겨내요!

mpn 미디어프린팅넷(주)

42721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72 인쇄문의 T.053-583-1045~8 F.053-583-2955

1. 가급적이면 나중에 만나요
2. 만나면 세발자국만 떨어져요
3. 악수는 팔꿈치 악수
4. 입은 가지고 작게 말하기
5. 재채기나 기침은 소매에하거나 마스크 착용

6. 손이 얼굴에 자주 가지 않게 해요
7. 손은 언제나 자주 씻어요
8. 공기는 자주 환기해요
9. 엘레베이터와 같이 밀착된 공간에서 서로 양보해요
10. 시민 서로에게 백신이 되는 사회적 우정, 미소 잊지 마세요!

지역사랑 고트너

‘나’ 보다 ‘우리’가 강하다. 서로 도우며 힘들수록 힘내세요!

음식관련

장기·화원



T.635-3434

생민가 숯가마
☎ 053.852.0035

경산시 와촌면 팔공로 86-8

기타(타구)지역



대구시 북구 대명로 596 053.981.1359

신금장어·아니고 전문점
☎ 053.586.9988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 1599-1

리빙

도배·장판 시공전문

안광인테리어
010-3099-1684
달서구 본동 970터미널 무료급식(비영리단체)
자원봉사 및 물품 후원 조동철 이사장 010-9195-1878

기타

T.(053)636-5238
달서구 삼인로 20 (4층)
(구. 상인나이트 건너편)945-2302
대구시 동구 봉무동 1545진집(진배, 평작 등), 인형, 장난감
다수 보유, 가격조정 / 직접방문필
문의: 010-3424-8523

상담고장센터 인후커리어 070-4306-1201

저렴한 가격, 정직한 마음으로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070-8911-7711
달성군 화원읍 인흥길 63 1층스타일리쉬한 인테리어의 아늑함
건축/인테리어전문
010.2902.3097우리동네 푸른방송
ICS 푸른방송
GLOBE CABLE TELEVISION STATION제보 및
가입 A/S 551-2000푸른신문은 독자가 만드는 신문입니다.
푸른신문은 모두에게 열린 신문입니다.소중하지 않는 삶이 없습니다.
나름의 가치와 나름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이 가치 있고 행복한 삶입니다.푸른신문은 그 소중한 삶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이 기자가 되어

사람 사는 이야기, 우리 사는 이야기를 신문에 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가족 이야기(결혼, 출산, 자녀교육 등), 코로나 관련 이야기(코로나 체험기, 코로나 블루 극복 등), 창업(개업) 이야기, 추천하고 싶은 나만의 취미...

나의 이야기도 좋고 주변의 이야기도 좋습니다.
원고를 써서 보내주셔도 좋고 제보만 해 주셔도 환영합니다.

살면서 느끼고 경험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집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 보내실 곳

편집국 (053) 572-6000 / E-mail: p5726000@naver.com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323길 13 3층 (우편번호 42640)

▶ 보내는 방법

- 헤스는 제한 없으나 원고를 써서 보내실 경우 1,000자 내외를 기본으로 합니다.
- 관련 사진 있으면 함께 보내주시고, 연락 전화번호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 신문에 게재되신 분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자연 속의 디지털 자동차극장

씨네80



상영시간

1회 19:00

2회 21:00

3회 22:50

www.cine80.co.kr
문의: 984-8008

다시 태어나는 별고을 '성주'

새 농촌형 교통모델 전기차 도입, 주차지도 완성, 별빛 골목길 조성

성주군은 20년 7월 성주버스정류장을 철거하고 임시승강장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50여년간 지역상권, 대중교통의 거점이었던 성주버스정류장의 철거는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시작으로 순환버스 도입, 버스 정보시스템 서비스 제공,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공간을 위한 주차장 조성, 침체된 도심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골목상권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성주도심은 새롭게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다.

'서민의 별'
보다 나은 서비스로 뚜렷→대중교통 서비스

성주는 그간 인근 대도시에 비해 낙후된 대중교통시설과 승객대기 장소 부족, 경선6리 관운사 주변 좁은 도로의 버스 운행에 따른 소음·진동과 안전사고 위험, 실리안·하나로 1,2차 아파트 등의 집단주거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 중앙로 상인들의 15분 정차 제한, 시장상인들의 시장과 승강장간의 연계수단 필요 등 개선을 요구하는 여러 목소리들이 있었다.

이러한 주민의 불편 최소화와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현재의 버스 대기소(성주읍 성산리 1521번지)에 임시버스정류장을 설치하고 시장과 집단주거지역을 정류장과 연계하기 위해 순환버스와 택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고 이를 위해 조례, 규칙의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임시버스정류장은 부지정비 및 부대시설(버스 및 택시 플랫폼, 대기소 등) 설치를 9월안으로 완료하고 순환버스와 택시를 운영하여 대중교통 사용자와 고령자의 대중교통 이용 접근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특히, 순환택시는 성주장날(2,7일)과 명절(명절 2일전부터 명절까지)에 실시간으로 운영함으로써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승객들과 시장의 연계로 시장주변 상권보호에 일익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순환버스는 정부의 그린뉴딜 사업에 동참하고 성주군의 친환경 이미지를 반영하여 전기버스를 도입·운행할 예정이며 기존 경유버스운행에 따른 소음·진동과 운영비(연료비) 부담을 줄이고 대기질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순환버스는 시범운영 등을 거쳐 의견 수렴 후 12월부터 전 기버스 도입 예정

현재 시행중인 별고을 택시와 계획 중인 순환버스와 택시를 성주군 지역여건에 맞춰 성주군만의 농촌형 교통모델로 발전시켜 주민의 이동권 보장, 고령층의 접근성 향상 등의 교통복지 제공으로 의료·문화·복지서비스 이용을 활성화시키고 도심의 역동성을 드높여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21년 1~12월의 사업기간을 거쳐 2022년에 도입하게 될 BIS(버스정보시스템)는 시내



버스에 대한 정보제공이 되지 않아 대중교통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시내버스 이용에 편의성 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객 편의 제공 및 인근 상가 접근성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골목의 재탄생

365일 축제를 열자→별이 빛나는 성주 골목길

골목에서 뛰어놀고 자란 세대는 알 것이다. 골목은 온갖 추억거리가 있고 어릴 적 같은 골목에서 놀던 집단의 공동체의식을 강화시켰던 곳이다. 옛날 우리 삶의 중심지인 골목은 쇠퇴와 침체의 아이콘이 되어 삶의 중심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

성주군에서는 이러한 우리 골목의 정체성을 되찾고자 '성주 별빛 골목길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성주의 로데오거리라고 불리는 성주읍 1, 2, 3길을 중심으로 '별이 빛나는 성주읍 골목'을 주제로 한 특화거리로 조성한다. ▲골목상권 상가 어닝 설치 ▲7개 교차로 레이저 조명으로 만드는 이색거리 ▲빈 담장 등을 활용한 골목 벽화 조성 ▲거리 특색 상점 조형물 및 포토존 제작 ▲성원 홍보 영상물제작 ▲버스킹 공연 등을 잡정 기획 중이며, 이를 통해 쇠퇴한 거리 이미지를 극복하고 골목의 특화성 부여로 거리 인식을 개선하는 한편 방문객들의 호기심 자극으로 골목 유입량을 증대하여 상권 활성화 등을 도모한다. 특별한 일 없어도 가족과 친구와 일상을 즐기기 위해 삽시다오 사람이 모여드는 골목을 기대한다.

지금 성주의 변화를 보고 있으면 마치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의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는 문구가 떠오른다.

기존의 틀을 깨고, 안식을 깨고, 통념을 깨고, 전통을 깨으면서도 '새'가 되기 위해 스스로 개척하여 변화하고자 하는 별고을 성주의 미래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자료제공:성주군청

유통기한 지난 '마요네즈' 유용하게 활용하기

어쩌다 한번 필요해서 산 마요네즈는 유통기한이 지난 기일쑤다. 이럴 때 버리면 절대 손해다. 달걀노른자로 만들어 영양도 풍부한 알카리성 식품 이면서 휘발성도 좋아 재활용하기 안성맞춤인 소재이다.

첫 번째 활용법은 가죽 종류 닦는데 적합하다. 가죽가방이나 가죽옷, 구두, 등 가죽 제품

을 닦아주면 때를 제거하는 효과도 좋지만 오래된 가죽의 윤기와 광택을 되찾아준다.

두 번째는 원목 가구 닦아 주기다. 대청소를 하다 보면 가구는 물걸레로 닦아도 웬지 칙칙한 느낌도 들고 물 얼룩이 생기게 마련이다. 이럴 때 물기 제거 후 마요네즈를 부드러운 헝겊에 묻혀 살살 닦아주면 윤기와 광택이 살아난다.

세 번째 활용법은 미지근한 물

이 물을 수 있다. 이럴 때 마요네즈를 바르고 살살 문지른 후에 중성세제를 미지근한 물에 풀어서 손세탁을 해 주면 얼룩을 쉽게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재활용하면 환경도 살리고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마요네즈 구입 후에는 반드시 서늘한 상온에서 보관해야 한다. 냉장 보관하면 재료의 성분들이 분리되어 변질 될 위험이 있다. 개봉 후에는 냉장 보관하고 최대한 빨리 먹는 것이 좋다. 남으면 재활용 꿀팁을 미지근한 물로 씻어준다. 이 때, 미끈거리는 느낌이 없어질 때까지 충분히 헹구어주어야 하고 남아있는 마요네즈 냄새는 마지막 헹굼 물에 식초 한 방울 떨어뜨려 깨끗하게 씻으면 된다.

다섯 번째 활용법은 옷에 문은 얼룩 지우기다. 흰옷을 입다 보면 화장품이나 립스틱

'셀프 작명' 도전해보세요

지난달 초보 아빠가 된 김우석(33) 씨는 아내가 조리원에 있는 동안 성명학 공부를 시작했다. 성명학은 이름에 그 사람의 미래가 담겨 있다는 기본 원리를 가진 학문으로 작명을 하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할 학문이다. 책상에 앉아 펜을 들고 공부하는 것을 언제 했었나 싶지만 우서 씨의 누나, 형 모두 자식들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는 것을 보고 본인도 아이 이름을 직접 지어주겠다는 결심을 오래전부터 했다고 한다.

"공부가 참 오랜만이고 생소한 분야의 공부지만 누나나 형이 조카들 이름을 직접 지어주고 사랑스럽게 불러주는 모습이 참 부럽고 좋아보였어요"

우서 씨는 그나마 형, 누나가 작명하던 몇 년 전보다 사정이 나아졌다며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예전에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인터넷 카페도 거의 없고 작명 관련 사이트도 지금처럼 많이 없어서 오로지 스스로 하는 공부만 믿고 이름을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요즘에는 성명학 공부를 통해 주려낸 몇 개의 이름을 작명 사이트에 입력하면 각각 점수를 매겨주기도 하고 태어난 아기의 사주를 분석해 작명하는 과정을 도와주기도 한다.

그렇다면 작명은 대략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 먼저 태어난 생년월일시로 태고난 사주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선천적으로 태고난 음양오행을 파악한 뒤 이와 어울리거나 모자란 부분을 보충하고 보완해 주는 방향으로 후천적 음양오행을 이름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이때 하나의 기준으로 음양오행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롭게 하는 오행을 뜻하는 '용신'이나 한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오행(자원오행), 소리 오행, 음양의 배합 등 고려해야 할 기준이 여럿 있다.

쉽게 바꿀 수도 없으면서 평생을 불러지는 것이 사람의 이름인 만큼 신중하게 지어야 할 이름. 이런 이름을 아빠나 엄마가 직접 작명해 준다면 아이에게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선물이 되지 않을까?

이원욱 객원기자

'두근두근' 성주의 감동을 찾아주세요

성주관광 전국 사진 공모전 개최

성주군은 '2020년 성주관광 전국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두근두근 성주의 감동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성주의 자연, 축제, 역사, 상징물 등 감동이 있는 사진, 성주를 홍보할 수 있는 사진이라면 무엇이든 상관없다.

사진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응모 분야는 디지털카메라와 스마트폰 분야로 나뉜다. 성주의 사계절을 모두 담을 수 있도록 지난해 1월1일부터 올해 10월31일까지 기간 중 활용한 작품에 한해 출품 가능하다.

작품 접수는 디지털카메라 및 스마트폰으로 활용된 컬러 및 흑백사진(11"×14")으로 1인당 3점까지다. 10월 5일(월)부터 11월 6일(금) 18시까지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입상작은 심사를 거쳐 성주군 홈페이지(www.sj.go.kr)를 통해 11월 6일 이후 밝힐 예정이며 분야별로 시상금이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 홈페이지(www.sj.go.kr) 또는 성주군청 문화관광과(054-930-8373)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성주군청〉

푸른방송 고객의 즐거운

가전렌탈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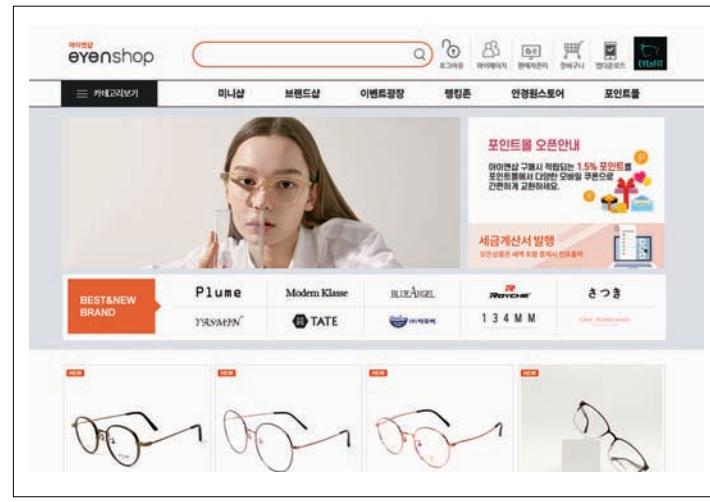


상기 제품의 다양한 가전 보유

상담문의 053-551-2000

안광학산업 온라인 주문량 73% 급상승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안광학산업 뉴딜 속도 낸다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원장 진광식)이 운영하는 국내·외 온라인 기업간 거래(B2B) 플랫폼이 안광학산업 디지털 전환과 뉴노멀 시대로 이끌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비대면화 확산,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경제사회 구조가 크게 요동치고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은 기업경영에 큰 어려움을 야기한 반면, '디지털 역량'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은 '온라인 안경 기업거래(B2B) 플랫폼인 아이엔샵(eyeshop.com, 이하 아이엔샵)'과 K-아이웨어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해외 안경수출 플랫폼 아이웨어코리아(eye wearkorea.com, 이하 아이웨어코리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대면영업 중심으로 이뤄진 안광학산업에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비대면 시장진출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아이엔샵도 수요에 대응, '전 상품 무료배송 이벤트', '수수료 면제 이벤트' 등의 지원으로 아이엔샵 이용률이 크게 늘어나 전년도 동월 기준 주문량은 73%, 매출은 49%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장용찬 팬데믹칼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한 불경기 속에서도 아이엔샵을 활용한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영업 사원들이 방문할 수 없는 곳의 거래처가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한편, 아이웨어코리아는 최근 해외바이어의 문의가 크게 늘어나 국내 제조기업과 300건 이상의 기업 매칭이 이뤄지며 최근 한 달 사이 약 3만 3,200달러 규모의 첫 계약을 성사시키는 등 디지털 플랫폼

은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꿈의 눈(대표 왕성효) 해외영업팀은 최근 아이웨어코리아를 통해 미국 신규 바이어와 안경테 1,800장 수출 계약을 성사시키고 "코로나19로 해외 출장이 불가해 신규 바이어 발굴이 어려웠는데 아이웨어코리아를 통해 신규 거래선을 확보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진흥원은 B2B 플랫폼 물류비 지원, 해외바이어 1:1 매칭지원, 비대면 전시회 운영, 온라인 콘텐츠 제작지원 등 안광학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보화 사업에 힘쓰고 있다.

이번 테스트는 자율협력주행을 위한 실시간 신호정보 제공의 안전운전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도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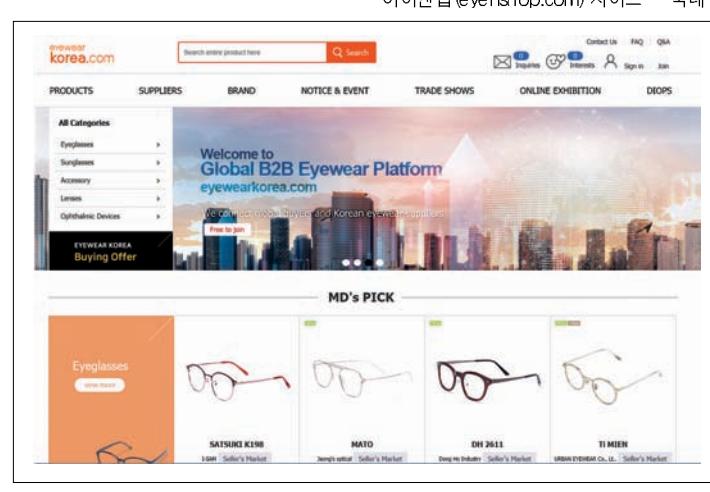
사가 지원하고, 도로교통공단은 시설시간 교통신호정보의 안전운전에 대한 효과 검증이다.

테스트는 일반운전자와 자율주행차의 안전운전 효과를 각각 검증하며 일반운전자는 연령별로 총 60명이 참여하고 이달 12일부터 30일까지 3주 동안 일반운전자 및 자율주행차량을 대상으로 한 운행시험을 매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진행한다.

세부내용은 신호등 미인식 상황, 자율협력주행 환경, 비보호 좌회전, 유턴에 대해 신호등 정보 및 신호잔여시간 제공 등 특정상황에 대한 일반 운전자 반응과 자율주행차

운전자나 자율주행차량에 안전운행을 위한 매우 중요한 교통정보다. 향후 달성군 국가산업단지에 테스트베드 환경이 구축되면 지역 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해 교통신호정보 개방사업 효과성 검증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테스트로 인해 수성알파시티 내 일부구간이 부분통제되니 시민들의 양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대구시청〉



특히, 대면영업 중심으로 이

광고문의 053.572-6000

코로나 시대 '대구시민대학'과 함께

6인의 명사와 함께하는 인생백년아카데미 12일부터 수강 신청 대학연계과정 10개 강좌 수강생 모집 중

대구시는 시민이 체감하는 풍요로운 일상의 학습을 제공하기 위해 인문소양교육, 공동체학습, 민주시민교육, 직업교육 등 다양한 주제로 '대구시민대학' 10월 강좌 무료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대구시민대학은 시민 누구나 나 나아제한 없이 무료로 수강할 수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인문학, 취·창업, 일상의 학습 등 연간 70여개 강좌를 운영해 3만 5천명의 시민이 수강했다.

이번에 모집하는 '대구시민대학'은 코로나19로 지원 대구시민을 위로하고 응원하기 위해 6인의 명사초청 강의를 비롯해 18개 강좌를 개설하였으며,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대구시 전역을 아우를 수 있는 6곳의 학습장을 마련했다. 개설강좌로는 △명사초청



인생백년아카데미 스마트한 디지털 교실 스도시농업△실생활 응용처치법△말문이 트이는 영어△인상경영△인문학△슬기로운 금융생활 등이다.

특히, 명사초청 인생백년아카데미 과정은 강좌 첫날인 오는 20일 배우 임동진을 시작으로 방송인 김보화, 이용

식, 의사 표진인, 소설가 김홍선, 국악인 오정해 등 명사 6인의 헌정 강연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대구시민들에게 따스한 메시지로 위로와 용기를 전해 줄 예정이다.

수강신청은 대구평생학습포털 '학습동'(tong.daegu.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대구시 교육협력정책관실 전화접수(053-803-6677)로 가능하다. 모집인원은 강좌에

따라 다르며 선착순 마감한다.

〈자료제공: 대구시청〉

달성군 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 가입 6만명 돌파!

달성군(군수 김문오)은 2014년 7월 대구시 최초로 도입한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의 누적 가입자 수가 최근 6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는 단속구간임을 알려주는 문자메시지의 발신을 통

해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함으로써 위반 시간을 단축시킬 과태료 부과를 예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자알림서비스는 고정식 및 이동식 CCTV를 이용한 주차단속 시에만 제공되며, 스마트폰 및 시내버스 탑재형 CCTV를 이용한 단속 시에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운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문오 군수는 "위반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함으로써 위반 시간을 단축시킬 흐름을 확보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대구에서 가장 먼저 도입된 문자 알림서비스를 많은 군민들께서 이용하시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달성군청〉

실시간 '교통신호정보 개방' 안전운전 효과 검증

수성알파시티 내 1개 교차로에서 테스트베드 운영

10월 12~30일 오전 9시~오후 6시 부분 통제

대구시와 도로교통공단은 시설시간 교통신호정보의 안전운전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수성알파시티 내 1개 교차로에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이를 위해 대구시와 도로교통공단은 전국 최초로 2Way 방식(대구시→신호제어기→공단)으로 실시간 교통신호정보 제공시스템을 구성해 운영한다. 대구시는 향후 테스트 결과를 분석하고 교통신호정보제공 기술을 보완해 달성군 국가산업단지 교차로 30개소에서 시범운영 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향후 테스트 결과를 분석하고 교통신호정보제공 기술을 보완해 달성군 국가산업단지 교차로 30개소에서 시범운영 할 예정이다.

교통신호정보 제공은 일반

운전자나 자율주행차량에 안전운행을 위한 매우 중요한 교통정보다. 향후 달성군 국가산업단지에 테스트베드 환경이 구축되면 지역 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해 교통신호정보 개방사업 효과성 검증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테스트로 인해 수성알파시티 내 일부구간이 부분통제되니 시민들의 양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정희 대구시 교통국장은 "일반운전자의 안전운전과 대구시 신성장동력인 자율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해 교통신호정보 개방사업 효과성 검증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테스트로 인해 수성알파시티 내 일부구간이 부분통제되니 시민들의 양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대구시청〉



상황실

대구소방 전국 최초 LTE출동지령시스템 구축 70m 고가사다리차 내년에 도입

대구소방안전본부(본부장 이지만)는 4개월에 걸친 모바일 출동지령시스템 구축사업을 지난 10월 5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2018년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당시 서울 종구, 서대문구, 마포구 일대에 통신장애가 발생해 완전 복구에 1주일 이상이 소요된 것을 계기로 2019년부터 대구소방은 KT와 협력해 신고 및 출동시스템 이원화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전화국과 통신구 이원화를 통해 신고시스템 이원화를 완료한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이번 모바일 출동지령시스템 구축으로 출동지령시스템을 이원화함으로써 신고에서 출동까지 긴급구조조직시스템 전체에 대한 이원화를 완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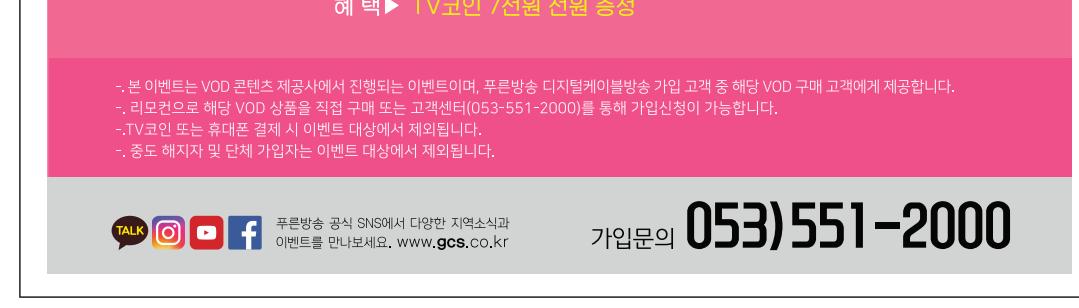
모바일 출동지령시스템은 전국 최초로 LTE를 이용하는 무선방식의 시스템으로 인터넷에 일시적인 장애가 생기더라도 차질 없는 출동지령을 가능케 해 보다 빈틈없는 재난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구소방안전본부는 고층건축물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가 가능한 70m 소방사다리차를 내년에 도입한다.

현재 아파트 기준 17층까지 사다리를 높 수 있는 53m 사다리차를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에 투입하고 있으며, 내년에 고층건축물 화재에 활용이 가능한 70m 고가사다리차를 새로 도입해 일선 소방서에 배치한다.

70m 고가사다리차는 아파트의 경우 23층까지 사다리를 높 수 있다. 이 사다리차의 길이는 13m, 폭 2.5m, 높이는 4m이며, 총중량 39톤의 특수차량으로 도입가격은 1대당 14억 원 정도다.

〈자료제공 대구소방안전본부〉



내 고장 문화유적 탐방

137. 화려하고 멋스러운 효자비각, 논공 하리 백원각

1) 프롤로그

오랜만에 효자비(각) 이야기를 해보자.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우리 고장에는 현재 15개 내외의 정려각이 있다. 대구 전체 정려각 수가 35개 정도가 되니 대구 정려각 절반이 우리 고장에 있는 것이다. 앞서 본 지면을 통해 몇 개의 정려각과 비각을 소개한 바가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다크형 정려각 '현풍과씨12정려각', 박팽년·박순·박일산 3부자의 충절을 기린 정려각 '삼충각', 그리고 돌로 만든 석조 비각 '송병규 효자비각'·'충주 석씨 절부비각' 등. 이번에는 우리 고장에 있는 효자비각 중 가장 화려하고 멋스러운 백원각(百源閣)에 대해 알아보자.

2) 정려각과 비각

많은 이들이 정려(각)과 비각을 혼동한다. 정려(각)은 삼국시대 이후 조선시대까지 충신·효자·열녀에 대해 조정에서 내린 표창이다. 정려는 본래 정묘자의 집 대문 앞, 혹은 마을 앞에 세운 허문(虛門)이다. 허문은 말 그대로 문틀만 있고, 가운데 문짝과 문 좌우로 이어진 벽체가 없다. 흔히 알고 있는 흥설문을 생각하면 된다. 다만 정려가 흥설문과 다른 점은 문상부에 정려 내용을 새긴 정려판(版)이 걸려 있다는 점이다.

노상에 뒹그러니 세워져 있는 정려는 나무로 만든 텃에 수명이 짧다. 그래서 정려가 노후되면 정려 상부에 게시된 정려판(판)은 떨어져 건물에 보관했는데, 이 건물을 정려각이라 한다. 세월이 흐르면서 정려각의 기능도 변했다. 정려각 내부에 봉안한 기물이 정려판(판) 외에 정려(각)의 내력을 새긴 정려비·정려기문 등으로 늘어났다.

정려를 봉안한 건물을 정려각이라 하는 것처럼 비를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건물을 비각이라 한다. 이처럼 정려각과 비각은 그 내부에 어떤 물건을 봉안하느냐에 따라 구분된다. 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근원적 차이가 있다. 바로 '국가공인'인가 아니면 '관인'인가의 차이다.

우리나라는 일제에 의해 국권을 빼앗긴 1910년 이전에는 조정에서 내려주는 정려가 있었다. 하지만 조정이 사라진 1910년 이후에는 정려라는 게 있을 수 없었다. '충신·효자·열녀'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의 정려제도를 일제가 인정할 리 없었던 것.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나온 것이 '유림향약본(本)·'와 '오문행실증간(證間)' 같은 조작이었다. 비록 정려를 내려 줄 조정은 없어졌지만 우리의 미풍양속을 지키고 장려하는 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다. 유림향약본(本)·'와 '오문행실증간(證間)'은 추천과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 정려 대신 '포장(褒章)' 등을 발급했다. 비유하자면 정려는 '대통령 표창' 혹은 '국가공인자격증'이라 할 수 있고, '포장(褒章)'·'포장' 등은 신뢰할 만한 관계기관에서 발급한 '관인자격증' 정도로 볼 수 있다.

이를 효자비(각) 이야기를 해보자.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우리 고장에는 현재 15개 내외의 정려각이 있다. 대구 전체 정려각 수가 35개 정도가 되니 대구 정려각 절반이 우리 고장에 있는 것이다. 앞서 본 지면을 통해 몇 개의 정려각과 비각을 소개한 바가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다크형 정려각 '현풍과씨12정려각', 박팽년·박순·박일산 3부자의 충절을 기린 정려각 '삼충각', 그리고 돌로 만든 석조 비각 '송병규 효자비각'·'충주 석씨 절부비각' 등. 이번에는 우리 고장에 있는 효자비각 중 가장 화려하고 멋스러운 백원각(百源閣)에 대해 알아보자.

3) 사성당 윤재훈

윤재훈(尹載勸·1857~1918)의 자는 문로(文老), 호는 사성당(四省堂)이다. '사성당'이라는 호만 봐도 그가 어떤 삶을 추구한 인물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 공자의 제자 중 효에 가장 밝았다는 증자의 '일일삼성' [一日三省·하루에 세 번 자신을 돌아본다 고사와 연관되기 때문이다. 하늘이 내린 효자로 알려진 윤재훈의 효행은 대략 이러하다.

윤재훈은 어려서부터 성품이 온후하고 효성이 지극하며 우애가 깊었다. 5~6세 어린나이에도 집 밖에서 흥사나 밤을 구하면 반드시 가슴에 품고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께 드렸고, 부모님께서 그것을 다드시는 난 후에야 비로소 자리에서 물러났다. 1886년(고종 23)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그는 슬픔으로 몸과 마음이 극도로 쇠약해졌다. 이때 해느 날 꿈에 신선이 나타나 아버지의 병을 치료했고, 병이 있을 때마다 지금 성성으로 병구원을 해 아버지를 원래시켰다. 한번은 오랜 병중에 있는 아버지를 낫게 해달라고 천지신명에 치극성성으로 기도를 했다. 그려서 어느 날 꿈에 신선이 나타나 아버지의 병은 신상과 미꾸라지를 달여 먹으면 낫는다고 했다. 하지만 임동 설현에 신상과 미꾸라지를 구하지 못하자 다시 하늘에 기도를 했다. 그의 기도에 하늘이 감응한 것인지 그는 눈덮인 산속에서 산삼을 얻었고, 얼음판에서 미꾸라지를 얻었다. 이를 성경껏 다려 아버지께 드리자 아버지의 병이 완쾌됐다.

5) 애필로그
윤재훈 효행비각 앞에 세워져 있는 안내판 면
마지막 구절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2012년에 건물을 고치던 중 상량문과 은반지
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사실이 고을을 넘어 조정에까지 알려지자 1898년(고종 35), 조정으로부터 소릉참봉의 벼슬이 내려졌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4년 후인 1922년, 오문행실증간(證間)로부터 효행으로 포장을 받았고, 1936년 지방 유림의 공의로 마을 입구에 효자비각을 세우고 백원각(百源閣)이라 이름 했다. 문집으로는 『사성당 효행 시문집』이 전한다.

4) 효는 백행의 근원, 백원각

옛 약산은천 입구 논공정소년아영장 서편 담장 바깥에 있는 백원각은 우리 고장에 있는 정려각·비각 중 가장 화려하고 멋스러운 비각 중 하나다. 백원각은 기와를 얹은 방형 흙돌담 안에 있는데 일반 비각에 비해 담장 안 공간이 꽤 넓은 편이다. 정면 1칸·측면 1칸 규모로 비각 상부 목재 부재에 화려한 금단장을 입히고, '다포식+의 공식'에 겹쳐마 팔작지붕을 엮어 격을 한껏 높였

송 은 석 (대구시문화관광해설사)
e-mail: 3169179@hanmail.net



백원각을 둘러싼 흙돌담과 배봉나무



하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화려한 성부구조

다. 비각 내부에는 가운데 효자윤공재훈지비(碑)가 있고, 내부 벽에 백원각기·백원각상량문(上梁文) 등이 걸려있다. 지금의 비각은 2012년 새롭게 중수한 것이다.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던 옛 모습은 사라졌지만, 보수와 사후 관리가 잘 되고 있어 다행이다.

5) 애필로그
윤재훈 효행비각 앞에 세워져 있는 안내판 면
마지막 구절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2012년에 건물을 고치던 중 상량문과 은반지
가 발견되었다'

전통건축물을 수리할 때 가끔씩 대들보 등에서 상량문을 포함한 각종 유물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백원각에서는 중수 때 상량문과 함께 은반지가 나왔다. 그런데 상량문은 그렇다 치고 난데 없이 은반지가 왜 나왔을까?

은반지는 예전에 여성들이 즐겨 썼다. 특히 쌍가락지는 남편 혹은 사랑하는 이가 먼 길을 떠날 때 그 징표로서 각각 하나씩 나눠 가지고 했다. 백원각 대들보에서 나온 은반지. 혹시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을 위해 부인이 넣어둔 것은 아닌지? 나중에도 문종 관계자를 만나면 백원각 은반지의 연유에 대해 꼭 한번 여쭤봐야겠다. 독자들도 궁금하지 않은가?

[지난 2020년 10월 11일. 오랜만에 백원각에 들렸는데 흙돌담 밖으로 철제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고 문은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목요단상(木曜斷想)

언어문화

언어는 생각을 전달하는 도구이다. 언어에는 말하는 사람의 생각뿐 아니라 인격과 교양이 고스란히 묻어 나온다. 언어를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읽고 서로를 이해하기도 한다.

이러한 언어의 혼돈이 요즘 너무 심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줄임말이나 여러 나라 말이 뒤섞인 언어들이 지나치게 넘쳐나고 있다. 가끔 짚은이들 사이의 대화를 듣다 보면 분명 우리나라 말 같은데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말을 줄여서 하기도 하고 외국어와 우리말이 뒤섞인 국적불명의 언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신조어들도 여과 없이 마구 생겨나고 있다. 뜻을 이해하기 어려운 신조어는 가끔 세대 간 의사소통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현상에 대한 사회적 대처는 매우 부족해 보인다. 오히려 이러한 사회현상을 바로잡아야 할 책무가 있는 기관이나 사람조차 이런 유행에 동조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우려스럽다. 공영 방송이나 공의 캠페인에도 우리말과 외국어가 뒤섞인 국적불명의 단어가 방송을 타고 흘러나오고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용어도 그에 맞게 사용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건강한 언어생활이나 세대 간 원활한 소통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고민을 하지 않은 것 같다.

어른들도 가끔 친구와 하는 대화에서 '씨'이 들어가는 표현을 상습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더 친한 감정을 나타내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 모르면 마치 시류에 뒤처지는 기분이 들기도 하는 이런 언어들은, 건조한 일상에 약간의 재미를 더해주는 효과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이 계속된다 보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처럼 나중에는 '그릇됨'이 '옳음'을 덮어버릴 수도 있다. 이런 현상이 더 확산되기 전에 언어를 정화시키고 언어의 품격을 높이는 사회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말은 마음에서 나온다. 응변가라고 모두 훌륭한 언어를 구사하는 것도 아니고 학력이 높다고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다. 어려운 한자이나 외국어를 많이 구사하지 않아도 품격 있는 언어를 구사할 수가 있다. 마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유행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재미있게 꾸미지 않아도 된다. 어눌하더라도 진심이 묻어나는 한마디 말로도 얼마든지 상대를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이다.

돈을 지불하고 먹는 밥이지만 식당을 나오면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라는 한마디. 내가 내는 관리비로 월급을 주면서 청소나 경비를 맡기지만 "수고 많으십니다"라는 한마디. 내가 주문한 물건을 집까지 배달해 주는 택배 기사에게 "감사합니다"라는 한 마디. 말 한마디로 감동을 받을 수도 있고 모두가 행복해질 수도 있다.

변점식 기자

국민연금 Q&A

Q.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회사(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서 퇴사한 경우에는 회사 담당자가 신고하게 되므로 개인적으로 퇴직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60세 전에 퇴사하게 되면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이 때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직원이 퇴사하였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 후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가입자 자격증명서를 작성하여 신고 하며, 개인이 별도로 상실신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사 후에도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면 퇴사자는 관할지사에서 자격확인청구서를 작성·제출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가 주민등록증 주소지로 발송이 되는데, 이때는 본인이나 관할지사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이 있으면 소득신고를,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는 방문이나 우편, 전화 및 팩스로 가능합니다.

참고로 지역가입자로 가입되더라도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가입신고 시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소득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액 산정 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 대구지사 / 국번없이 1355

길을 물고 달하자

국가관

오늘날 국가가 없는 개인의 삶을 생각하기는 매우 어렵다. 국가는 인간 생활 대부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가가 실정한 범위 내에서 그들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사회에 있어서 국가는 우리에게 운명공동체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국가, 즉 우리의 조국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이며 내 삶과 빼는 근원이 되는 곳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든, 그 땅을 조국이라고 부르는 우리는 내 생명을 다 바쳐서 사랑해야 할 대상인 것이다. 그래서 국가가 없는 개인의 삶을 생각하기는 매우 어렵다. 국가가 국민들의 안식처라고 할 때, 가정은 혈연으로 뱋어진 몇몇 사람들의 안식처라고 할 수 있

다. 가정이 봉괴되면 그 구성원들의 삶도 비참해지고, 특히 어린 자녀들은 정상적인 성인이 되지 못하고 온갖 설움을 겪으며 어려운 환경속에서 살아갈 확률이 높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1970년대에 125만명의 이상군과 세계 4위에 이르는 공군력을 가졌던 월남이 하루 2끼를 주먹밥으로 때우고 슬리퍼를 신은 월맹에 패하였다. 또 미군의 케네디 전 대통령은 "국가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 줄 것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개인과 국가의 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하는 말들이다.

국가를 위한 가치 덕목으로 애국애족, 충성봉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늘 가슴에 새기고 행동으로 실천해야 하는 핵심 덕목이다. 국가에 대한 한없는 사랑을 가지고 조국 대민국을 위해 신명을 바치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헌신하고 보트를 이용해 바다로 탈출한 난민중 11만여 명이



구용희 경상대학교 교수



기쁨 Plus
SBS Plus

다 함께 fun!
SBS funE

함께 만드는 스포츠 세상
SBS Sports

골프의 모든 순간
SBS Golf

의견있는 경제채널
SBS CNBC

Music & More
SBS MTV

Kids First
nickelodeon

SBS Medianet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재미와 감동
SBS 미디어넷과 함께 만드는 기쁨은 언제나 'On-Air'입니다.

SBS Plus SBS Sports SBS Golf SBS funE SBS CNBC SBS MTV nickelodeon

'학생의 아이디어'로 학교를 만들어요

달성군의 한 중학교를 다니는 김한영(14)군은 최근 만들어진 학교의 학생 놀이 공간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다. 쉬는 시간이면 창밖에 있는 놀이공간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좀 더 여유가 있는 점심 시간이나 방과후에는 직접 놀이공간에 가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낸다. 사실 이 놀이 공간은 김한영 군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곳이다. 직접 설계

‘학생참여예산제’는 학생 자치 공약 이행 및 학생 제안 아이디어를 실현할 예산을 지원해 학생 스스로 사업을 기획하며 학생이 주체가 되는 교육활동이다. 무엇보다 학생을 주체적, 자발적 인격체로 존중하며 민주적인 학교 공동

체 문화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학생참여예산제는 우선 학교 운영 경비의 일정 부분 이상을 관련 예산으로 편성하고 학생자치회나 교내 공모를 통해 사업을 제안 받는다. 물론 제안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 받지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학교 문화는 학생들에게 학교에 대한 자긍심과 주인의식을 심어줄 것이다.

“제 꿈이 건축가인데 이번 일을 계기로 제 꿈이 더 명확해졌어요. 친구들도 그렇고 요즘은 코로나로 힘든 시기인데 제가 기획한 놀이공간에서 많아 힐링하면 좋겠습니다”

2020학년도부터 대구의 모

학생이 직접 디자인하는 학교생활을 위한 학생참여예산제



는 초중고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생참여예산제는 학생들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학교시설 구축부터 복

도 벽화 그리기, 암시 우산 운영, 학년별 체육대회 등 다양한 활동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원욱 객원기자

2020 대구 학생 온라인 책축제

‘책 너머 책’으로의 여행에 초대합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10월 20일부터 10월 29일을 대구시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책축제 기간으로 정해 온라인 행사를 진행한다. 유튜브나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카카오톡 채널을 주기하면 프로그램 정보를 실시간 제공받을 수 있다.

운영 프로그램은 ‘인문학 콘서트’, ‘애들아 잘 있니’, ‘방구석 1열 도란도란 프로그램은 개인의 사연을 책으로 만들어주고(10. 21.) 책을 읽

여 주는 선생님(10. 22.)을 온라인으로 만나거나 책 쓰기와 관련한 실습(10. 23.)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다. 또한 부모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북작북작(book作) 콘서트가 10월 26일 예정되어 있으며 시 쓰기와 연관한 공부(10. 27.)도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할 수 있다. 날짜만 매일 바뀌고 시간은 저녁 7시부터 8시까지로

고정되어 있다. 특히 현재는 책 축제 기간 중 ‘당신의 사연을 책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코너에 소개할 사연을 공모 중이다. 코로나 19로 인한 생활 변화나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에피소드 등을 내용으로 시나 이야기, 일기, 편지 등 자유로운 갈래로 참여 가능하며 대구학생은 라인책축제 카카오톡 채널로 사연을 보내거나 책축제 운영



자에게 메일(dgebook@dge.go.kr)로 전송하면 참여할 수 있다.

이원욱 객원기자

이젠 집에서 우주관측 하세요

국립대구과학관, 1m 망원경 원격관측자 모집… 19일까지



국립대구과학관(관장 김주한)이 1m 주망원경의 원격관측자를 19일까지 모집한다.

국립대구과학관 천문대에 설치된 1m 망원경은 국내에서 세 번째로 큰 망원경으로, 직접 구동해 볼 수 있는 망원경 중에서는 가장 크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한 이번 모집에서는 총 6팀을 선발할 예정이다. 사전 비대면 교육을 거친 뒤,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매달 1팀씩 원격관측을 수행할 수 있으며, 모든 교육 및



부터 내년 4월 사이에 진행해 양질의 관측 자료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대구과학관 홈페이지(<https://www.dnsm.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9일까지 E-mail (obs0@dnsm.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립대구과학관 천문대 담당자는 “연구용 목적이 아니라 대형 망원경을 직접 구동해 천체를 활용할 수 있다”며 “신청자격에 제한이 없는 만큼, 적극적인 신청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국립대구과학관

매년 10명 이상 공기업 합격

제일여상 전인영, 전국 2명 뽑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합격

공기업 취업의 산실임을 자부하는 금융·통신 분야 특성화고인 대구제일여자상업고등학교(교장 이칠우)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첫 합격자를 배출하는 값진 성과를 거두었다.

이 학교 3학년 전인영 학생이 최종합격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준 정부기관으로서 누구에게나 선망의 대상이며, 전국에서 2명만 최종 합격할 정도로 그 문이 극히 좁다. 수 전인영 학생은 입학 후 편드 투자권유대행인, 한국시행령 검정시험 1급, *틴매경 A등급, 전신회계 1급 등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KSD 나눔재단의 성과연계형 장학사업에도 참여하였으며, 2019년 전국 상업경진대회에서는 금융실

무 부문에서 금상을 차지하여 전문 금융인의 자질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등 다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낸 준비된 인재이다.

*틴매경: 매일경제신문이 주관하여 시행하는 청소년 금융경제 이해력 시험

전인영 학생은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 한국은행 청소년 경제 캠프 등 학교에서 제 공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취업특별반 활동, 교내 취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모의 면접 등 다양한 지원과 격려가 꿈의 기업 최종합격이라는 결과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된 것 같다. 입사 후 ‘선취업 후진학’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수도권 명문대 진학도 하고 싶고, 주택금융 분야

의 인정받는 전문가로 거듭나고 싶다”라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매년 10명 이상의 공기업 합격자를 배출하는 대구제일여상은 취업의 질적 수준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9월 29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공기업 1호 합격자를 배출한데 이어, 10월 시작과 동시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2명의 학생이 1차 합격하여 최종 면접을 앞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전력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철도공사, 한국증권금융 등의 공기업에도 서류통과 또는 필기전형에 합격한 학생이 다수 있어 앞으로 상당수의 공



기업 합격자 배출을 예고하고 있다.

이칠우 교장은 “공기업 합격자를 배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혼신하고 있는 모든

교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공기업 취업 산실로서의 위상을 다지기 위해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자료제공: 제일여자상업고등학교〉

대한민국의 자랑 ‘한글’

세계에 현재 사용되는 28개 문자 중 가장 독창적이고 세련된 문자로 인정받고 있는 문자가 우리의 한글이다. 한글날은 바로 이러한 위대한 문화유산인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문화적으로 뛰어난 국민임을 일깨우기 위한 기념일이다.

사실 한글은 따뜻하고 배려심이 많은 왕이 글을 모르는 백성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세상에 나오기 어려웠을 것이다.

세종대왕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나타낼 수 있는 문자를 만들려고 노력한 끝에 스물여덟자의 한글을 만들어 모든 백성이 쉽게 이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글의 우수성은 우선 숫자로도 나타난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한글 문자를 제외한 오로지 자음과 모음 24자를 조합하면 무려 만 친 자가 넘는 글자를 만들 수 있다. 이를 통해 세종대왕의 바람대로 세상의 거의 모든 소리와 말을 글로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배우는 과정에서도 발음하는 소리와 글자의 형태가 일치하는 한글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자이다. 이밖에도 한글이 다른 문자와 차별을 두는 점은 창제연도(1443년)와 만든 사람(세종대왕)이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다. 세계 유명한 언어학자들 중 한 명인 에드워드 라이샤워 하버드 대 교수는 한글의 우수성을 알아보고 한글날은 세계인이 축하해야 할 날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매일 사용하는 글이지만 한글날을 계기로 한글을 사용하는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되새겨 보는 것은 어떨까?

이원욱 객원기자



상인초 13년만에 축구장 전면 보수

남부교육지원청, 인조잔디 교체 등

대구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수환)은 올해 7월부터 총 사업비 3억 5천여만 원을 편성해 대구상인초등학교(이하 상인초) 노후 인조잔디를 교체하고 그물망 철거 후 공막이 펜스를 설치하는 등 축구장을 전면 보수했다.

상인초에 인조잔디를 완전히 교체한 것은 13년 만에 처음이다. 잔디가 낡아 전문적인 훈련을 필요로 하는 어린 축구 꿈나무의 이용불편은 물론, 안전사고 우려도 있었다.

새롭게 설치된 인조잔디는 중금속 검사 등 축구장에 대한 KS규격을 충족하는 안전시설물로 설치됐으며, 이를 통해 여자 축구부 전력을 강화하고 학생들 및 인근 주민들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체육활동을 위한 장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새 인조잔디로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체육활동을 즐기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돼 새로 단장한 운동장을 학생들과 주민 여러분께 돌려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남부교육지원청〉

대구학생문화센터 미디어 아트 ‘화려한 빛으로의 초대’

대구학생문화센터(관장 강형구)는 12일부터 11월 8일까지 서울·경기지역 미디어전문 예술가들을 초청한 ‘화려한 빛으로의 초대’ 전을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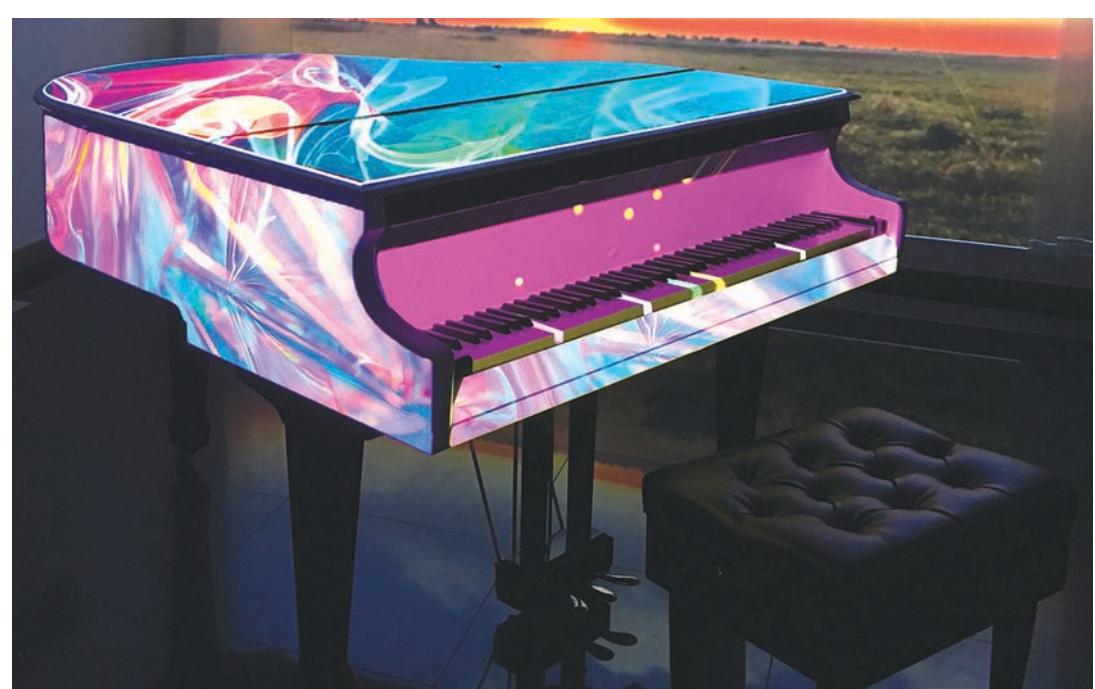
미디어아트 ‘화려한 빛으로의 초대’ 전은 다양한 형태의 입체적인 사물에 빛을 투사하여 마치 움직이는 듯 보여지는 프로젝션 맵핑 작품들과 관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적인 요소를 포함하여 보기만 하던 기존 방식을 넘어 관객이 직접 참여하고 작품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관람과 체험은 전액 무료로 진행되며, 미디어 아트에 대한 전문적인 설명을 들 수 있다.

이번 전시는 대구학생문화센터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2020년 전시 공간 활성화 사업에 공모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전시로, 지방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서울권의 독특하고 화려한 미디어 예술분야를 학생과 시민들이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 있다.

이번 전시로 과학 기술, IT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실제 음악 연주에 맞추어 건반이 움직이거나, 음악에 맞는 화려한 디자인을 감상하며, 미술과 음악, 기술의 만남을 마주할 수 있다.

박연진 작가의 빛과 함께 춤을 ‘Dance with the Light’ 작품은 빛의 움직임을 이용하여 음악과 함께 춤을 할 수 있다.

이번 전시로 과학 기술, IT



김봄 작가의 작품

형미를 폐션에 적용한 작품으로, 빛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하고 움직이는 아름다운 선율과 움동에 따라 공간적 차지 현상을 볼 수 있다. 그 밖에 고은채, 김영민, 안재연, 이주비, 임병철, 조자나, 황영식 작가의 감각적이고 독특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강형구 관장은 “이번 전시를 통하여 예술과 융합된 미디어작품을 직접 체험하면서 새로움에 대한 도전과 미래에 필요한 창의융합적인 역량에 한 발 다가서는 기회가 될 수 있길 바라며, 관람 시 코로나19 방역규칙을 준수 할 수 있도록 안내요원의 안내에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대구학생문화센터〉

가을의 전령 ‘국화’

일교자가 커지고 가을 햇살이 따사로운 전형적인 가을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 19로 봄부터 쭉 힘든 시간을 보내 왔는데 어느새 가을은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와 있다.

가을을 대표하는 꽃하면 누구나 쉽게 국화를 떠올릴 것이다. 나들이 삼아 대구지역 최대 화훼단지인 불로화훼단지로 한번 가보자. 운동 노량하고 빨간 국화꽃 향연이 펼쳐져 코로나 시름은 잠시 접어두고 눈호강 실컷 할 수 있다. 수십 개의 화원마다 제철 맞은 알록달록 화려한 국화꽃을 인도에까지 빼곡히 내놓고 손님들의 눈길을 잡아끈다. 어느 화원을 들어가더라도 가격이 저렴하고 꽃 상태도 최상이다. 불로화훼단지에서 25년째 화원을 운영하고 있는 정영호(49) 사장은 요즘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단다. 밀려드는 단체주문 배달마다 예쁘고 싱싱한 국화를 구입하기 위해 화원으로 찾아오는 개별 손님들도 부쩍 늘었기 때문이다. 색깔이 선명하고 꽃망울이 일정한 크기로 동그랗게 수형을 잘 잡은 화분이 좋은 국화꽃이라며 국화꽃 고르는 팁도 알려주신다.

3천 원 미니 화분에서부터 4~5만 원 하는 대형 국화는 종류도 매우 많지만 개화형태에 따라 하나의 꽃대에 하나의 꽃을 피우는 스텐드 국화(흔히 장례식이나 제례용으로 사용되는)와 하나의 꽃대에 여러 개의 꽃을 피우는 스프레이 국화로 나뉘는데 지금 유통되는 국화 화분은 모두 스프레이 국화로 보면 된다. 국화는 꽃 색깔이 아주 다양하고 모양도 다양한데 가장 흔하게 보이는 흥꽃형을 비롯하여 겹꽃형, 아네모네형, 타구공 같은 품종형, 가늘고 긴 거미줄 모양 같은 스



파이더형까지 아주 다채롭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물었다 보다”라고 미당 서정주 시인이 국화꽃을 두고 일찍이 노래한 것처럼 코로나19 시련 속에서도 어김없이 가을은 오고 국화꽃은 그렇게 화려하게 피어나 우리의 자진 마음을 위하고 있다.

서순옥 객원기자

